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6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음 깨기

초여름, 성장

교회행사

6월은 싱그러운 초여름입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열매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을 시작하고 있네요.
성장하는 계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쯤 걷고 있나요?

1.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그래프를 그려보고, 나눠보세요.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1-22일 유학생 수련회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7월

- 7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 13-14일 더조이유아유치부여름강화학교
- 20-21일 초등1,2,3부 여름성경학교
- 26-29일 중등,고등부 수련회

경배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선교

[임상택 선교사]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비아

1. 따보또 교회의 부지 관련 서류와 건축이 은혜중에 진행되도록
2. 아산을 비롯한 구도자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성령의 만지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길.
3. 아웃리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 소식

한문장 큰 울림

1. 기도하는 6월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2. 임명 빌더스단원으로 1부예배 김성수 집사, 수요일예배 배준서 청년을 임명합니다.
3. 더가족 세미나 더온누리 하늘가족 디딤돌 과정을 오는 6월16일 오후 4시 3층 레위의 장막에서 4주간 진행합니다. 더온누리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기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주세요.
4. 남전도회 체육대회 공동체 안의 돌아보아야 할 지체와 마음을 함께하기 위한 남전도회 체육대회(배구,족구)를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2일(토) 08:40~13:00, 종료후 점심식사
-장소: 신흥 중학교/ 신흥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문의: 유신 집사(010-7400-9996)

모든 게 짝튼다
포옹 속에서
부화하고 태어난다
포옹 속에서
피어나고 날고 흐른다
포옹 속에서
그리하여 지구는 꽃핀다
포옹 속에서
- '포옹_정현중' 시 중에서 -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9-11)

모세의 법 (1절)

[행15: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며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며 변론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방 지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의 바보에서 총독 바울이 회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센 반발과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전도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것을 들은 모든 성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찬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교회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들과 격렬하게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 (11절)

[행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문안하고,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 됩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많은 변론을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야기 했지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어느 의견으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교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회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구원의 방법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맞다’라고 변론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8절) 둘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9절) 결론적으로 구원은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는다.(10-11절)

[나눔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논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눔2] 공동체 안에 다름이 있을 때, 각자 걸어온 관습대로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기록된 말씀의 권위와 부여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마음을 모으시겠습니까?

[나눔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눔 주일 말씀 [분수령(分水嶺)모세의 법이나?,예수의 복음이나? / 사도행전 15:1-11]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드립니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